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과 가정생활건강성 연구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Implement of Manners
and their Strengths of Family Life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자원경영전공
석 사 이 흥 화*
명예교수 이 정 우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Master : Lee, Hong Hwa
Emeritus Professor : Lee, Jeong Woo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분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Manners is important factor of healthy family life and helps to form diverse human relationship properly at university and society.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anners by examining university student's conduct of manners which is basically demanded for harmonious social life and progressive human relationship.

First, the health level of the conduct of the subject students appeared to exceed the average.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conduct of manners and strengths of healthy family life, it has been analyzed that humanitarian value, number of siblings and realiza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healthy family life are serious variables.

Third,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conduct of the manner of family life, the higher the level of strengths of healthy family life.

* 주저자 : 이흥화 (honghwa2@sookmyung.ac.kr)

· Key Words : 예절수행(implement of manners), 가정생활건강성(strengths of family life)

I. 서론

예절은 인간의 공동생활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태어나 자라면서 오랫동안 걸쳐 가정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교육의 영향력은 단순히 유년기나 아동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가정내에서의 사회화와 재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형성되어야 할 예의범절이나 인격형성을 학교 교육에 의존하는 풍조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학습지도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지식 습득을 더욱 우선시함에 따라 가정과 학교에서 예의범절을 비롯한 도덕성 및 가치관 형성 교육에 소홀해져 잘못된 자아개념과 지나친 경쟁위주의 사회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여건 하에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복잡한 인간관계를 수반하는 직장생활이나 결혼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된다. 2004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이혼율은 9.3%로 결혼한 부부 11쌍 중 1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가족위기·가족해체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건강한 사회·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대학생들이 가정적·사회적 위협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과 정도를 걷는 수행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행위 규칙이며 사회규범인 예를 갖추어 가정과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연하면 예절은 인간

에게 있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가정·사회생활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격도야를 위한 전인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전인교육 차원에서 학교와 가정 및 사회단체를 통해 시대에 맞는 예절교육이 재정립이 되어야겠다.

대학생 시기는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젊은 성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공고히 하고 보다 자율적이 되며, 가족 밖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아직 그들의 가족과의 건강한 접촉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한편 그들의 원가족으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성취하는 과정을 겪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Erikson(1959)에 의하면, 대학생 시기를 한 개인이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인 모든 측면을 통합해야 하는 과도기로 규정짓고, 이 시기의 성공적인 적응은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인생에 대한 대비를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기와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청년기인 대학생의 시기는 올바른 가치관을 재정립함과 더불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사회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원활히 이루어야 하는 과업이 있으므로 대학생 시기의 바람직한 적응은 성공적인 성인기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원만한 인간관계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생활예절수행 수준을 점검하고, 이들의 생활예절수행이 가정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가정생활·학교생활·사회생활 등 다양한 인적 교류에서 바람직한 관계형성과 올바른 행동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예절수행

‘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사회생활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자기관리와 사회인으로서의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 ‘예’는 사회생활의 기본이 된다. 이는 ‘예’가 인간의 인격 형성요건인 동시에 사회생활 및 국가의 기본 요건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예’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욕구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는 남을 위해 일방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약속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됴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자 척도이다(이정우 외, 2001).

동양의 대표적 사상가인 공자는 예절은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 하며, “예(禮)가 아니거든 보지도 말고 예(禮)가 아니거든 듣지도 말고 예(禮)가 아니거든 움직이지도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고 일렀다. 이를 공자의 ‘인(仁)’의 사상(思想)이라고 한다(조기홍 외, 1987). 맹자는 ‘예’를 인간 성품의 도덕적 기본요소의 하나로 파악해, ‘사양(辭讓)하는 마음’이라는 선한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지적한다. 이렇듯 동양의 석학들이 모든 사물의 이치와 근본을 ‘예’로서 규정한 것을 미루어볼 때, ‘예’는 오래전부터 우리 생활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양에서의 예절의 정의를 살펴보면, Post(1997)는 예절은 배려와 친절에 바탕을 둔 행동의 규범이라 하였고, Boykin(1989)은 친절,

공손, 공명정대한 정신, 타인의 의견에 대한 관대함, 자제심, 성실한 마음과 적당한 유머, 자존심, 상식에 따르는 것이라 하였으며, Free(1969)는 에티켓을 공손함, 바른 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세 가지(courtesy, good taste, consideration with others)를 실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서양에서의 예절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지역과 국가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호감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난처한 상황에 처하도록 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고, 특히 여성을 존중하는 것 등의 공통된 특성이 있다. 동양예절은 상하신분의 구별을 하는 편인데 비하여 서양예절은 자유와 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하간의 ‘예’가 아닌 대등한 인간간의 예의를 중시하며, 나아가 동양예절과는 전혀 다른 ‘여성존중 사상’을 예절 속에 내포하고 있다(이정우 외, 2003). 서양에서 전해 내려오는 “상대가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상대에게 하라(Do un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unto you)”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역지사지(易地思之)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또한 명심보감(1997)을 보면, “남이 나를 중히 여기게 하려면 내가 먼저 남을 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若要人重我 無過我重人)” 하여 먼저 행하는 예절을 언급하였다. 위와 같이 예절의 근본정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며,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경애(敬愛)의 정신이다.

생활예절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청소년, 기혼자를 대상으로 생활예절의식·수행·실태에 관하여 각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예절에 대한 요구도나 관심 및 의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로는 이정우·김연화(1998), 정지영·주영애·안현숙(1996), 임혜경·정지영(1996), 이형숙(1998), 박금주·안은숙(1998) 등의 연구가 있으며,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에 관한 연구는 가치의식과 함께 조사한 김희경·정영숙(1999)의 연구가 있다.

2. 가정생활건강성

이정우·김경아(2003)는 가정생활건강성이란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측면에 초점을 둔 것으로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기능 즉, 가족성원들 간의 유대감과 시간공유 및 의사소통 그리고 위기 시 대처능력 등을 가족 개개인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인 인지수준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가족 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초반 미국에서 Otto (1963)의 강한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가족 건강성을 가족원 모두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에서 행복도가 높고 서로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는 가족이라고 정의한 Stinnett와 Barnhill로부터이다(최선희, 1999). 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는 흔히 강한가족(strong family), 건강한 가족 (healthy family), 정상적인 가족(normal family), 신가족 (new family), 기능적인 가족 (functional family), 최적의 가족(optimal family), 건전가족(健全家族) 등의 용어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건강가족을 정의함에 있어서 가족을 사회적 단위로 보고 그 내부의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개인성 존중, 격려, 칭찬 등 개인발달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가정학자들의 연구로서 가정생활전반에 대해서 연구하며, 가정의 인적·물적·관리적 체문제를 포괄적으로 다

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은주·유영주(1995)가 가족원 상호간의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가치)적 관계 향상을 도모하는 가족으로 건강한 가족을 정의하였다. 서병숙(1994)은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가족가치관과 가족체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가정을 건전가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가정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가정생활건강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원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는 유영주(1999), 전영주·차정화(2002) 등의 연구가 있으며, 청소년기의 가정생활건강성을 연구한 이정우·김경아(2002, 2003), 도시 자녀교육기 주부를 대상으로 도시가정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을 연구한 어은주·유영주(1997), 농촌가정의 건강성을 연구한 양순미(2001), 도시주부의 가정생활건강도와 가정관리 Stress에 관해 연구한 이정우·오연옥(2000) 등의 연구가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가족의 건강성과의 관계를 알아본 오정옥(1999)의 연구가 있다.

3. 생활예절수행과 가정생활건강성과의 관계

생활예절수행과 가정생활건강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정우·김경아(2002, 2003)의 연구를 시작으로 초기 단계에 있다. 이정우·김경아(2002, 2003)의 연구에서는 예절바른 실천적 태도를 지닌 청소년들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가정생활건강성이 확연히 높다고 나타남으로써 청소년의 바른 생활규범은 곧 건강한 가정생활의 토대가 됨이 증명되었다. 이는 청소년 스스로 예절에 대한 덕목들을 잘 수행할 때 울

바른 자기관리와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됨으로써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분석해볼 때, 대인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생활예절수행 수준이 높아질수록 상호작용측면에 초점을 둔 가정생활건강성은 평상시에는 융화를, 위기 시에는 적절히 긴장을 풀어주어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켜 가정생활건강성 수준이 증가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의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고 동기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변인인 예절수행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4. 관련변인 고찰

1) 개인관련변인

(1) 성별 및 학교유형

김희경·정영숙(1999)의 연구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은 차이가 없으나 수신예절과 대인관계예절의 수행은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의례생활예절의 수행은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높은 수행 수준을 보였다. 임혜경·정지영(1996)의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이 모든 예절영역에 대해 더 많이 부족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대학생은 여자대학생보다 예절의 비현실적인 측면과 예절이 몸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예절의 실천에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정옥(1999)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여학생이 남학생들에 비해 가족건강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2) 학년

임혜경·정지영(199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들이 2학년보다 1학년이 생활예절 하위영역 중에서 가족생활예절이 부족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우·김연화(1998)의 여자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생활예절 수강 후 태도·행동변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행숙(1999)의 연구에서는 대학 2학년이 1학년보다 의생활영역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과 관련하여 생활예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오정옥(1996)의 연구에서는 3학년 1학년 2학년 순으로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3) 전공

김희경·정영숙(1999)의 연구에서는 예체능계열 대학생이 타계열 대학생보다 생활예절의식 하위영역 중 가정의례예절의 가치의식이 높았으며, 이행숙(1999)의 연구에서는 예체능계열 대학생들이 타계열 대학생들보다 의생활영역, 수신생활영역, 가족생활영역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임혜경·정지영(1996)의 연구에서는 가정계열 대학생들이 기타계열 대학생들보다 의례생활예절교육을 더 필요로 하였다. 한편, 전공과 관련한 가정생활건강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4) 성적

이정우·김연화(199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수업참여태도가 높을수록 수강 후 태도·행동변화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업참여태도는 성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므로, 성적이 높을수록 예절태도·행동변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성적과 가정생활건강성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5) 종교

김희경·정영숙(1999)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은 가정의례예절 영역에서 불교나 무종교

집단이 기독교와 천주교 집단보다 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리에 따른 가정의례를 실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 도시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어은주·유영주(1996)의 연구에 의하면, 부인이 종교가 있는 집단의 가족 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6) 가치지향성

이정우·김지영(2002)에 의하면 물질주의 가치지향성이 높은 집단 보다는 인본주의 가치지향성이 높은 신세대 주부집단이 생활예절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정우·김경아(200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모두 인본주의 가치성향이 높을수록 예절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인간의 가치와 관심을 중시 여기는 인본주의 가치지향성이 생활예절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치지향성과 관련한 가정생활건강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7) 성역할태도

이정우·김연화(1998)의 연구에서 대학성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생활예절에 대한 관심도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정우·김지영(2002)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신세대 주부집단이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집단에 비해 전통예절과 방문예절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환일·김연화(2003)의 연구에서는 도시 기혼남성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환경변인

(1) 가족형태

이정우·이미선(1985)의 연구에 의하면, 확대가족 대학생보다는 핵가족 대학생들이 예절면에서 효과가 현저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숙(1999)의 연구에서는 확대가족이 아닐수

록 개인예절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순미(2001)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가족에서는 확대가족보다는 핵가족에서 가족의 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2) 형제자매수

임혜경·정지영(1996)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수가 많은 대학생집단이 가족수가 적은 대학생집단에 비해 예절교육 요구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러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예절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형제자매수와 관련한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3) 출생순위

정지영·주영애·안현숙(199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출생순위에 따른 예절교육필요성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형숙(1999)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출생순위에 따른 예절교육필요성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오정옥(1999)의 연구에 의하면 출생순위별로 독자나 독녀인 대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족건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생활예절관련변인

(1) 생활예절교육 수강여부

김희경·정영숙(1999)의 연구에서 생활예절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수신예절과 대인관계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임혜경·정지영(1996)의 연구에 의하면 예절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 집단이 경험이 없는 대학생 집단보다 의례생활예절교육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예절교육 수강여부와 가정생활건강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2) 예절습득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김희경·정영숙(1999)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수신예절과 가정의례예절은 주교육자

가 학교보다는 부모님일 경우 가치의식이 높았다. 임혜경·정지영(1996)의 연구에서는 예절의 주교육자가 학교 선생님인 학생의 경우는 부모 및 친척·책과 TV가 주교육자인 경우보다 가족생활예절에 대해 더 부족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절습득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과 가정생활건강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3) 생활예절수행 중요성인지도

오환일·김연화(2003)의 연구에 의하면, 생활예절중요성인지도가 기혼남성의 전체 생활예절수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나타났고, 도시 부부를 대상으로 김연화(2002)의 연구에서도 예절중요성인지도가 가족예절수행, 사교예절수행,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과 가정생활건강성의 일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라 생활예절수행과 가정생활건강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에 따라 가정생활건강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도구

조사대상자인 대학생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배경변인을 개인관련변인, 가정환경변인, 생활예절관련변인으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으로, 개인관련변인은 성별을 비롯한 학교 유형, 학년, 전공계열, 성적, 종교, 가치지향성

(물질주의 가치지향성 $\alpha=.72$, 인본주의 가치지향성 $\alpha=.67$), 성역할태도($\alpha=.73$)를 포함한 7개의 변인을 선정하였으며, 가정환경변인은 가족형태, 형제자매수, 출생순위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생활예절관련변인으로는 생활예절교육 수강여부, 예절습득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생활예절수행 중요성인지도($\alpha=.91$)를 묻는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생활예절수행 척도는 이정우·김경아(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재구성한 것으로 대화예절, 인사예절, 공중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의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검증결과 $\alpha=.88$ 로 나타났다.

가정생활건강성의 척도는 이정우·김경아(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유대감, 커뮤니케이션, 시간공유, 위기대처능력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alpha=.96$ 으로 조사되었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상위권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예비조사는 2003년 5월 19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남학생, 남녀공학여학생, 여자대학여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03년 9월 1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대학생 1,200명에게 실시하여 1,095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1,079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PC WIN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ronbach's α 신뢰계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VIF지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사후검증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을 개인관련변인, 가정환경변인, 생활예절관련변인으로 나누었으며, 그 특성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2.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 및 가정생활건강성의 일반적 수준

1)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의 일반적 수준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의 일반적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 수준은 평균 3.67로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79명)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
개 인 관 련 변 인	성별 및 학교유형	남학생	388	36.0	개 인 관 련 변 인	인본주의 가치 지향성	상	169	15.7
		남녀공학여학생	389	36.0			중	700	64.9
		여자대학여학생	302	28.0		하	208	19.3	
	학년	1학년	255	23.6		성역할 태도	근대적	201	18.6
		2학년	288	26.7	중립적		631	58.5	
		3학년	275	25.5	전통적		238	22.1	
		4학년	261	24.2	가 정 환 경 변 인	가족형태	핵가족	971	90.0
	전공	문과·인문	363	33.6			확대가족	108	10.0
		이과·공과	283	26.2		형제/ 자매수	1명	83	7.7
		경영·정법	203	18.8	2명		670	62.1	
		생활과학	59	5.5	3명 이상		326	30.2	
		음악·미술	123	11.4	출생 순위	첫째	546	50.6	
	기타	48	4.4	가운데		114	10.6		
	성적	3.0 미만	222	20.7		막내	419	38.8	
		3.0~3.5 미만	382	35.4	예절교육 수강여부	유	886	82.1	
		3.5~4.0 미만	350	32.4		무	192	17.8	
		4.0 이상	116	10.8	생 활 예 절 관 련 변 인	예절습득 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조부모	57	5.3
	종교	기독교	320	29.7			아버지	357	33.1
		불교	162	15.0			어머니	532	49.3
		천주교	172	15.9			형제자매	40	3.7
기타/종교 없음		424	39.3	교·강사			32	3.0	
물질주의 가치 지향성	상	158	14.6	선후배 및 상사			26	2.4	
	중	728	67.5	기타	18	1.7			
	하	188	17.4	예절수행 중요성 인지도	상	319	29.6		
물질주의 가치 지향성	중	728	67.5		중	655	60.7		
	하	188	17.4		하	104	9.6		

※ 변인들의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 상 : M+SD 이상, 중 : M-SD 이상 ~ M+SD 미만, 하 : M-SD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함

<표 2>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의 일반적 수준

(5점 만점)

생활예절수행													
대화예절		인사예절		공중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3.31	.65	3.73	.61	3.58	.60	3.65	.69	3.83	.63	4.0	.63	3.67	.41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예절(4.0), 사교예절(3.83)의 생활예절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식사예절과 사교예절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지고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김희경·정영숙(1999)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예절을 수신예절이나 가정의례예절보다 더 높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2003)의 연구에서도 생활예절수행의 하위영역 중 식사예절과 사교예절의 수행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2) 대학생의 가정생활건강성의 일반적 수준
 대학생의 가정생활건강성의 일반적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학생이 인지하는 전체적인 가정생활건강성의 평균은 3.47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대학생들이 비교적 가정생활을 건강하게 영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위영역 중 유대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정우·김경아(2002, 2003), 어은주·유영주(1997)의 연구에서 가족원간의 유대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

한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건강도를 가족간의 몰입, 의사소통, 가족가치관, 적응력으로 구분한 오정옥(1999)의 연구에서 가족간의 몰입이 가장 높게 나온 결과와 유사하다.

3. 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생활예절수행과 가정생활건강성

1) 개인관련변인에 따른 생활예절수행과 가정생활건강성

(1) 대학생의 개인관련변인에 따른 생활예절수행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을 개인관련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여자대학에 재학중인 여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생활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인의 수행수준을 점검할 준거집단이 많고, 주변의 기대수준과 학교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이 높을수록 생활예절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정우·김연화(1998)의 연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수강 후 태도·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과 일치한다.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생활과학 전공집단이 타 전공집단에 비해 공중예절·사교예

<표 3> 대학생의 가정생활건강성의 일반적 수준

(5점 만점)

가정생활건강성									
유대감		시간공유		의사소통		위기대처능력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3.80	.70	3.19	.81	3.40	.72	3.51	.66	3.47	.62

<표 4> 대학생의 개인관련변인에 따른 생활예절수행

변인	구분	대화예절		인사예절		공중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		전체	
		M	D	M	D	M	D	M	D	M	D	M	D	M	D
성별	남학생	3.24	A	3.71	AB	3.47	A	3.69		3.70	A	3.82	A	3.60	A
	남여공학여학생	3.30	A	3.69	A	3.56	B	3.60	-	3.85	B	4.05	B	3.66	B
	여자대학여학생	3.41	B	3.79	B	3.75	C	3.68		3.98	C	4.17	C	3.79	C
	F	5.77**		2.60		19.01***		1.91		17.36***		29.75***		18.96***	
학년	1학년	3.26	A	3.66	A	3.48	A	3.54	A	3.81	AB	4.00		3.61	A
	2학년	3.24	A	3.73	AB	3.59	B	3.64	AB	3.75	A	3.97		3.65	AB
	3학년	3.33	AB	3.71	AB	3.60	B	3.72	B	3.89	B	4.03		3.70	BC
	4학년	3.42	B	3.81	B	3.63	B	3.70	B	3.88	B	4.01		3.73	C
	F	4.16**		2.80*		2.89*		3.56*		3.14*		.56		4.66**	
전공	문과·인문	3.32		3.71		3.57	B	3.61		3.85	ABC	4.03	AB	3.67	
	이과·공과	3.28		3.72		3.55	B	3.70		3.78	AB	3.92	A	3.66	
	경영·정법	3.37		3.73		3.60	B	3.72		3.82	AB	4.00	AB	3.69	
	생활과학	3.38	-	3.81	-	3.80	C	3.63	-	4.03	C	4.11	B	3.79	-
	음악·미술	3.24		3.75		3.59	B	3.55		3.90	BC	4.10	AB	3.67	
	기타	3.22		3.81		3.34	A	3.71		3.68	A	3.93	A	3.60	
F	1.06		.52		3.21**		1.57		2.33*		2.28*		1.36		
성적	3.0미만	3.12	A	3.56	A	3.36	A	3.52	A	3.71	A	3.90	A	3.51	A
	3.0~3.5미만	3.35	B	3.77	B	3.63	B	3.66	B	3.79	A	4.00	AB	3.69	B
	3.5~4.0미만	3.31	B	3.75	B	3.63	B	3.71	B	3.92	B	4.06	B	3.72	BC
	4.0이상	3.50	C	3.84	B	3.70	B	3.72	B	3.95	B	4.06	B	3.79	C
	F	9.97***		7.69***		12.93***		3.83**		6.82***		3.50*		16.48***	
종교	기독교	3.89	B	3.75		3.62		3.71	BC	3.88		4.05		3.72	B
	불교	3.30	AB	3.76		3.54		3.79	C	3.78		3.92		3.68	AB
	천주교	3.38	B	3.76	-	3.64	-	3.63	AB	3.85	-	4.03	-	3.71	AB
	기타/종교없음	3.22	A	3.68		3.54		3.57	A	3.82		3.99		3.63	A
	F	4.85**		1.31		2.07		5.13**		.97		1.69		3.61*	
물질 주의 가치 지향 성	상	3.34		3.69		3.55	A	3.68		3.93		4.02		3.69	
	중	3.30	-	3.73	-	3.56	A	3.64	-	3.83	-	3.99	-	3.66	-
	하	3.29		3.76		3.70	B	3.66		3.77		4.04		3.71	
	F	.26		.49		2.82		.21		2.66		.47		.91	
인본 주의 가치 지향 성	상	3.43	B	3.98	C	3.66	B	3.83	C	3.93	B	4.19	C	3.84	C
	중	3.33	B	3.72	B	0	B	3.69	B	3.84	B	4.00	B	3.69	B
	하	3.13	A	3.56	A	3.43	A	3.39	A	3.73	A	3.87	A	3.51	A
	F	11.12***		22.72***		9.67***		21.75***		5.10**		12.16***		30.91***	
성역 할 태도	근대적	3.31		3.76	B	3.64	B	3.63		3.93	B	4.11	B	3.71	B
	중립적	3.31	-	3.75	B	3.62	B	3.67	-	3.85	B	4.05	B	3.70	B
	전통적	3.30		3.63	A	3.41	A	3.65		3.70	A	3.78	A	3.57	A
	F	.03		3.46*		11.51***		.22		8.07***		19.96***		9.36***	

*p<.05 **p<.01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상 : M+SD 이상, 중 : M-SD 이상 ~ M+SD 미만, 하 : M-SD 미만으로 구분함

절·식사에예절에서 수행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생활과학전공 학생들이 타 전공 학생들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고, 교과과목을 통해 생활예절에 대해 접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적이 높을수록 생활예절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정우·김연화(1998)의 연구 결과에서 수업참여태도가 성실할수록 수강 후 태도·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과 유사하다. 종교에 따라서는 대화예절에서 기독교 집단과 천주교 집단이 기타/종교없음 집단보다 예절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예절에서는 불교집단이 다른 종교집단에 비해 가정예절수행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리나 종교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생활예절수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인본주의 가치지향성이 높을수록 생활예절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본주의 가치성향이 생활예절 가치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김지영, 2002)와 일치하였다. 성역할태도에서는 전통적 성역할태도보다는 근대적·중립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집단의 인사예절·공중예절·사교예절·식사에예절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예절이란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하며 의식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로써 인식되고 있으며, 전통을 계승한 의례예절보다는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사교예절, 식사예절, 공중예절이 부각되어 예절의 의미와 수행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대학생의 개인관련변인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

대학생의 가정생활건강성을 개인관련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성별 및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유대감에서 여사대학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수준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남학생보다는 비교적 부모님과 형제자매간에 친근한 여학생의 유대감 수준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에 따라서는 시간공유 영역에서 2학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같은 집단 내에서도 3학년이 1·4학년 보다 시간공유 수준이 낮은 것을 볼 때, 학과나 동아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2·3학년 학생들이 가족원들과 함께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성적이 높을수록 가정생활건강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학업(學業)에 대해 가족구성원의 관심과 배려를 받은 영향이라 생각된다. 한편, 기독교 집단과 불교 집단이 기타/종교없음 집단보다 가정생활건강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가족간에 종교를 공유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유대감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대처능력이 다른 종교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2)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생활예절수행과 가정생활건강성

(1) 대학생의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생활예절수행

대학생의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생활예절수행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독자/독녀 집단이 형제자매수가 2명인 집단보다 대화예절과 공중예절의 수행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타집단에 비해 가정내에서 대인간의 예절에 대해 수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독자/독녀 집단이 관계형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의해 대화예절과 공중예절에 대한 높은 관심이 수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 가족형태와 출생순위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대학생의 개인관련변인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

변인	구분	유대감		커뮤니케이션		시간공유		위기대처능력		전체	
		M	D	M	D	M	D	M	D	M	D
성별	남학생	3.73	A	3.38		3.12	A	3.49		3.43	
	남녀공학여학생	3.80	AB	3.37	-	3.25	B	3.50	-	3.48	-
	여자대학여학생	3.87	B	3.46		3.21	AB	3.53		3.52	
	F	3.69*		1.41		2.68		.37		1.85	
학년	1학년	3.76		3.33	AB	3.23	B	3.55		3.47	
	2학년	3.78		3.32	A	3.08	A	3.45		3.41	
	3학년	3.82		3.47	B	3.22	B	3.52		3.51	
	4학년	3.82		3.43	AB	3.25	B	3.50		3.50	
	F	.54		2.10		2.74*		1.06		1.54	
전공	문과·인문	3.81		3.39	AB	3.21	AB	3.51		3.48	
	이과·공과	3.76		3.40	AB	3.18	A	3.48		3.45	
	경영·정법	3.82		3.41	AB	3.21	AB	3.54		3.49	
	생활과학	3.90		3.56	B	3.14	A	3.58		3.54	
	음악·미술	3.72		3.32	A	3.08	A	3.46		3.40	
	기타	3.86		3.38	AB	3.42	B	3.52		3.55	
	F	.81		.87		1.37		.50		.75	
성적	3.0미만	3.59	A	3.19	A	2.97	A	3.35	A	3.28	A
	3.0~3.5미만	3.78	B	3.38	B	3.20	B	3.47	B	3.45	B
	3.5~4.0미만	3.88	BC	3.48	BC	3.27	BC	3.57	B	3.56	BC
	4.0이상	3.97	C	3.58	C	3.36	C	3.74	C	3.65	C
	F	10.56***		10.02***		8.62***		11.13***		13.16***	
종교	기독교	3.88	B	3.45		3.30	B	3.58	B	3.55	B
	불교	3.90	B	3.46		3.28	B	3.60	B	3.57	B
	천주교	3.79	AB	3.40		3.19	AB	3.48	AB	3.50	AB
	기타/종교없음	3.69	A	3.33		3.08	A	3.42	A	3.38	A
	F	5.63**		2.20		5.50**		4.69**		5.89**	
물질주의 가치 지향성	상	3.73	A	3.37		3.18		3.49		3.44	
	중	3.78	AB	3.39	-	3.19	-	3.50	-	3.47	-
	하	3.88	B	3.43		3.18		3.54		3.51	
	F	1.97		.32		.04		.41		.49	
인본주의 가치 지향성	상	4.02	C	3.50	B	3.28	B	3.70	C	3.62	C
	중	3.83	B	3.44	B	3.23	B	3.53	B	3.51	B
	하	3.48	A	3.17	A	2.97	A	3.26	A	3.22	A
	F	32.17***		13.21***		9.64***		22.91***		23.61***	
성역할 태도	근대적	3.88		3.43		3.21		3.55		3.52	
	중립적	3.80	-	3.39	-	3.15	-	3.48	-	3.45	-
	전통적	3.72		3.40		3.26		3.53		3.48	
	F	2.61		.26		1.65		1.32		.82	

*p<.05 **p<.01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각 하위 영역의 상중하 집단은 상 : M+SD 이상, 중 : M-SD 이상 ~ M+SD 미만, 하 : M-SD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함

<표 6> 대학생의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생활예절수행

변인	구분	대화예절		인사예절		공중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		전체	
		M	D	M	D	M	D	M	D	M	D	M	D	M	D
가족 형태	핵가족	3.31	-	3.73	-	3.57	-	3.66	-	3.83	-	3.99	-	3.67	-
	확대가족	3.31	-	3.69	-	3.60	-	3.59	-	3.91	-	4.10	-	3.69	-
	t	.04		.62		-.39		1.01		-1.27		-1.62		-.43	
형제/ 자매수	1명	3.44	B	3.73		3.68	B	3.77		3.94		3.99		3.76	B
	2명	3.26	A	3.70	-	3.53	A	3.63	-	3.81	-	4.00	-	3.64	A
	3명이상	3.37	AB	3.78		3.64	AB	3.67		3.85		4.02		3.72	AB
	F	4.77**		1.77		4.62*		1.81		1.76		.13		5.49**	
출생 순위	첫째	3.33		3.75		3.59	AB	3.67		3.85		4.01		3.69	AB
	가운데	3.36	-	3.78	-	3.67	B	3.70	-	3.88	-	4.01	-	3.73	B
	막내	3.27		3.69		3.53	A	3.62		3.80		3.99		3.64	A
	F	1.68		1.60		2.53		.85		1.22		.24		2.97	

*p<.05 **p<.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대학생의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

대학생의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형제자매수에서 독자/독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독자/독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와 1:1 접촉빈도가 높아지면서 커뮤니케이션 빈도도 향상되고, 의사소통이 용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형태와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생활예절관련변인에 따른 생활예절수행과 가정생활건강성

(1) 대학생의 생활예절관련변인에 따른 생활예절수행

대학생의 생활예절관련변인에 따른 생활예

<표 7> 대학생의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

변인	구분	유대감		커뮤니케이션		시간공유		위기대처능력		전체	
		M	D	M	D	M	D	M	D	M	D
가족형태	핵가족	3.79		3.40		3.19		3.51		3.47	
	확대가족	3.82	-	3.36	-	3.17	-	3.50	-	3.46	-
	t	-.44		.61		.32		.09		.18	
형제/ 자매수	1명	3.91	B	3.56	B	3.28		3.58		3.58	B
	2명	3.81	AB	3.41	A	3.21	-	3.51	-	3.48	AB
	3명이상	3.73	A	3.33	A	3.13		3.49		3.42	A
	F	2.50		3.57*		1.76		.72		2.53	
출생 순위	첫째	3.81		3.43		3.24		3.50		3.49	
	가운데	3.73	-	3.31	-	3.17	-	3.48	-	3.43	-
	막내	3.80		3.38		3.14		3.52		3.46	
	F	.62		1.74		1.85		.15		.75	

*p<.05,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8> 대학생의 생활예절관련변인에 따른 생활예절수행

변인	구분	대화예절		인사예절		공중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		전체	
		M	D	M	D	M	D	M	D	M	D	M	D	M	D
예절교육 수강여부	유무	3.33		3.76		3.57		3.68		3.84		4.02		3.69	
		3.21		3.59		3.59		3.56		3.82		3.94		3.61	
	t	-2.41		-3.39		.28		-2.15		-.26		-1.63		-2.14*	
예절습득 에 가장 영향을 준사람	조부모	3.17		3.79		3.61	BC	3.48	BCD	3.83		4.18	B	3.66	C
	아버지	3.31		3.73		3.53	ABC	3.71	D	3.82		3.95	AB	3.66	C
	어머니	3.34		3.75		3.63	BC	3.69	D	3.86		4.03	AB	3.71	C
	형제자매	3.37	-	3.64	-	3.34	AB	3.60	CD	3.70	-	4.04	AB	3.59	BC
	교·강사	3.30		3.56		3.73	C	3.33	BC	3.74		4.04	AB	3.61	BC
	선후배및	3.09		3.62		3.58	ABC	3.02	A	3.69		3.78	A	3.46	AB
	상사 기타	3.03		3.41		3.31	A	3.28	AB	3.63		3.78	A	3.38	A
F	1.78	1.70		2.97**		7.23***		1.16		2.25*		3.64**			
예절 수행 중요성 인지도	상	3.43	C	3.90	C	3.71	C	3.83	C	4.01	C	4.16	C	3.83	C
	중	3.29	B	3.69	B	3.56	B	3.61	B	3.80	B	4.00	B	3.65	B
	하	3.05	A	3.40	A	3.25	A	3.34	A	3.51	A	3.53	A	3.34	A
F	14.10***	30.03***		24.38***		23.28***		27.74***		43.56***		60.99***			

*p<.05 **p<.01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각 하위 영역의 상중하 집단은 상 : M+SD 이상, 중 : M-SD 이상 ~ M+SD 미만, 하 : M-SD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함

절수행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생활예절교육 수강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에 비해 생활예절수행 수준(3.69)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절습득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변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예절수행 하위영역 중 공중예절에서는 교·강사 집단이, 가정예절에서는 아버지·어머니 집단이, 식사예절에서는 조부모라고 답한 집단의 생활예절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중예절은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교·강사 집단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핵가족이 많은 현대사회의 특성상 가정예절은 부모로부터 교육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생활예절수행 중요성인지를 살펴보면, 하위영역 모두에서 p<.001 수준으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예절 관련변인 중에서 생활예절수행 중요성인지도가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절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예절의식과 관심정도가 높고, 이는 곧 생활예절수행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2) 대학생의 생활예절관련변인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

대학생의 생활예절관련변인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9>과 같다.

예절습득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에서는 유대감·커뮤니케이션·시간공유·위기대처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집단이 가장 뚜렷하게 가정생활건강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생활예절습득에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가 주된 영향을 준 가정에서는 가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분위기가 더욱 공고하여 다른 가정보다 가정생활건강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생활예절수행 중요성인지도에서는 중요성을 높게 인지한 집단일

<표 9> 대학생의 생활예절관련변인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

변인	구분	유대감		커뮤니케이션		시간공유		위기대처능력		전체	
		M	D	M	D	M	D	M	D	M	D
예절교육 수강여부	유무	3.83 3.65		3.43 3.25		3.22 3.03		3.53 3.39		3.50 3.33	
	t	-2.92		-3.13		-3.02		-2.74		-3.40	
예절 습득에 영향을 준사람	조부모	3.71	BC	3.33	BCD	3.01	AB	3.51	AB	3.40	BC
	아버지	3.85	C	3.48	D	3.30	B	3.58	B	3.55	BC
	어머니	3.84	C	3.40	CD	3.18	AB	3.48	AB	3.47	B
	형제자매	3.56	ABC	3.27	BCD	2.84	A	3.45	AB	3.29	ABC
	교·강사	3.50	AB	3.13	ABC	2.97	AB	3.28	AB	3.22	AB
	선후배및상사	3.30	A	3.01	AB	2.85	A	3.21	A	3.09	A
	기타	3.44	AB	2.87	A	3.18	AB	3.39	AB	3.22	AB
F	5.63***		4.93***		3.96**		2.58*		4.74***		
예절수행 중요성 인지도	상	4.00	C	3.57	C	3.32	B	3.66	C	3.63	C
	중	3.75	B	3.35	B	3.15	A	3.47	B	3.43	B
	하	3.45	A	3.16	A	3.05	A	3.27	A	3.24	A
	F	27.86***		16.28***		6.30**		16.97***		20.03***	

*p<.05 **p<.01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상중하 집단은 상 : M+SD 이상, 중 : M-SD 이상 ~ M+SD 미만, 하 : M-SD 미만

수록 가정생활건강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절교육 수강여부와 가정생활건강성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에 따라 가정생활건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대화예절·인사예절·가정예절·사교예절·전체생활예절수행은 유대감·커뮤니케이션·시간공유·위기대처능력·전체가정생활건강성에 p<.001 수준으로 높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공중예절은 유대감·커뮤니케이션·위기대처능력·전체가정생활건강성에서 p<.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식사예절에서도 시간공유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은 가정생활건강성에 중요한

변인이라 해석할 수 있는데, 생활예절수행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정생활건강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하면, 대학생 시기에 올바른 생활예절수행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사회생활과 대인관계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으로 인식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 정도는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의 생활예절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식사예절과 사교예절의 수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은 비교적 가정생활을 건강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유대감에 대한 인지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는 가정 내에서도 상호관계를 중요시 하는 유대감의 인지수준이 가

<표 10>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에 따른 가정생활건강성

생활예절수행		가정생활 건강성		유대감		커뮤니케이션		시간공유		위기대처능력		전체	
		M	D	M	D	M	D	M	D	M	D	M	D
대화예절	상 중 하	4.02	C	3.64	C	3.41	C	3.73	C	3.70	C		
		3.81	B	3.40	B	3.22	B	3.51	B	3.48	B		
		3.44	A	3.09	A	2.79	A	3.20	A	3.13	A		
F		32.09***		25.68***		28.27***		29.87***		37.41***			
인사예절	상 중 하	4.11	C	3.65	C	3.50	C	3.75	C	3.75	C		
		3.80	B	3.38	B	3.18	B	3.52	B	3.47	B		
		3.45	A	3.20	A	2.93	A	3.20	A	3.20	A		
F		41.61***		17.95***		22.57***		32.52***		35.75***			
공중예절	상 중 하	3.94	C	3.54	B	3.27		3.65	C	3.60	C		
		3.82	B	3.43	B	3.21	-	3.52	B	3.49	B		
		3.66	A	3.25	A	3.10		3.39	A	3.35	A		
F		11.26***		12.53***		2.99		10.82***		11.14***			
가정예절	상 중 하	4.36	C	3.98	C	3.67	C	3.98	C	3.99	C		
		3.76	B	3.36	B	3.16	B	3.47	B	3.44	B		
		3.21	A	2.84	A	2.70	A	3.10	A	2.96	A		
F		142.62***		137.10***		70.28***		92.30***		147.87***			
사교예절	상 중 하	3.96	C	3.57	C	3.38	C	3.67	C	3.65	C		
		3.81	B	3.41	B	3.20	B	3.51	B	3.48	B		
		3.56	A	3.17	A	2.97	A	3.34	A	3.26	A		
F		14.14***		12.90***		10.56***		10.16***		15.76***			
식사예절	상 중 하	3.90	B	3.51	B	3.22		3.63	B	3.56	B		
		3.80	AB	3.40	B	3.20	-	3.50	AB	3.48	B		
		3.67	A	3.24	A	3.10		3.40	A	3.36	A		
F		4.10*		5.47**		1.05		5.00**		4.31*			
전체	상 중 하	4.25	C	3.88	C	3.60	C	3.92	C	3.90	C		
		3.80	B	3.38	B	3.18	B	3.49	B	3.47	B		
		3.33	A	2.98	A	2.78	A	3.13	A	3.06	A		
F		78.55***		72.84***		45.37***		64.79***		85.58***			

*p<.05 **p<.01 ***p<.00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생활예절수행 전체와 각 하위 영역의 상중하 집단은 상 : M+SD 이상, 중: M-SD 이상~M+SD 미만, 하 : M-SD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함

정생활건강성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로써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라 생활예절수행과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개인관련변인에서는 인본주의 가치지향성이, 가정환경변인에서는 형제자매수가, 생활예절관련 변인에서는 생활예절수행 중요성인지도가 가장 유의한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인간의 가치와 인

간에 대한 관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본주의 가치지향성과 생활예절수행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의미하는 중요성 인지도는 다양한 관계를 맺는 대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의 지원과 배려가 중요한 현시대적 상황에서 형제자매수도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지원을 부모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부모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생활건강성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올바른 생활예절수행은 가정생활건강성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예절수행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예절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현실에 맞고 수행을 중심으로 한 생활예절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상위권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상대적이고 상호성이 강한 사안이 많아서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고 수용하는데 다소 한계가 따른다. 후속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 및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비교적 다양한 배경변인을 투입하여 생활예절수행과 가정생활건강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경제적 복지감, 생활수준 등의 현실적인 변인과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심리적인 요인을 투입하여 좀 더 다각적이며 폭넓은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역기능적인 사회현상과 가족해체의 위기상황에 직면해있는 현시대에 가정생활건강성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생활예절수행이 매우 의미 있는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생활예절수행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실습위주의 생활예절교육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

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을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접하게 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해를 증진시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아(2003). 청소년의 예절수행 세대전이 및 가정생활건강성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김지영(2002).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이 생활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희경, 정영숙(1999).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 한국생활과학 회지, 8(2), 387-398
- 4) 양순미(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어은주, 유영주(1997). 한국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 - 자녀 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69-285.
- 6) 오정옥(1999). 가족의 건강성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4(2), 153-172.
- 7) 오환일, 김연화(2003). 도시 기혼남성의 생활예절수행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1, 5-25.
- 8) 유영주(1999). 건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 설정에 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93-102.
- 9) 이정우, 이미선(1985). 가정관리실습관 실습 후의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3(2), 1-13.

- 10) _____, 김연화(1998). 대학생의 '생활예절' 관심도 및 수강 후 태도·행동 변화에 대한 만족도 -숙대생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2), 161-173.
- 11) _____, 김명나, 김연화, 김경아, 강기정 (2001). 지구촌 생활문화와 국제매너. 양서원
- 12) _____, 김경아(2002).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와 가정생활건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2), 79-95.
- 13) _____, 이계순, 오연옥, 이형숙, 이명숙, 김연화, 김경아(2003). 현대생활매너.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 14) 이형숙(1998). 대학생의 예절의식과 예절 행동에 관한 연구 -생태학적 환경체계 관점에서-. 한국여성교양학회지, 5, 173-199.
- 15) 임혜경, 정지영(1996). 대학생의 예절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4, 1-22.
- 16) 정지영, 주영애, 안현숙(1996). 대학생의 예절교육에 대한 의식조사 - 전문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교양학회지, 3, 307-335.
- 17) 최선희(1999). 한국인의 가족건강성 영역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통계청(2004). <http://www.nso.go.kr/>.
- 19) Free Ann R.(1969). Social usage(2nd ed.).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20) Barnhill, L.(1979). Healthy family systems. Family Coordinator, 28.
- 21) Boykin, E, 김영만 역(1989). This way please(에티켓 사전). 을유문화사.
- 22) Erikson, E. H.(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e Press.
- 23) Otto, H. A.(1963). Criteria for assessing family strengths. Family Process, 2, 329-338.
- 24) Post, P.(1997). Emily Post's etiquette(16th ed). Harper Collins Publishers.
- 25) Stinnett, N & De Frain, J.(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Little, Brown.